

의존명사 ‘둥’의 변천과 문법 기능 변화

정혜선*

|| 차례 ||

- I. 서론
- II. 의존명사 ‘둥’의 변천
- III. ‘둥’의 범주 및 기능 변화 해석
- IV. 결론

【 】

이 연구는 의존명사 ‘둥’의 쓰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 기능 변화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우선, 중세국어에서 ‘둥’은 인지 동사 앞에 분포하여 내포문 어미로 기능하거나 의존명사 구성으로 모문 동사의 부사어나 보어로 기능한다. 인지 구문에서의 ‘-ㄴ둥’은 내포문 어미의 성격을 지나다가 근대국어 후기로 갈수록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 연결어미, 종결어미의 기능이 새로이 나타난다. ‘-ㄴ 둥’이 부사어나 보어로 쓰이는 예는 현대국어에까지 유지된다. 한편 ‘-ㄴ 둥’은 20세기 초 주로 신소설 자료에서 간접인용 구문에 새롭게 쓰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간접인용 구문에서의 쓰임은 역사적으로 ‘-ㄴ둥’이 자문의 종결어미로 기능하던 것에 기인함을 논의하였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피인용절에 결합하는 ‘-거니와’와 ‘-나’ 역시 자문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주제어 : 둥, 변천, 인지 구문, 의존명사, 어미, 간접인용, 자문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I. 서론

이 연구는 의존명사 ‘둥’의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의 문법 기능을 살펴본 뒤 변천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둥’의 문법 범주 및 구분 출현 양상을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¹⁾

현대국어에서 ‘둥’은 관형사형어미 ‘-리’와 결합해서는 ‘죽을 둥 살 둥’과 같은 관용 표현으로 주로 나타나고,²⁾ ‘-니’와 결합해서는 반복 구성으로 쓰여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함”을 나타내거나 “이렇다저니 저렇다저니 하며 말이 많음”을 나타낸다(표준국어대사전).

(1) 가. 얼굴을 본 둥 만 둥 그냥 지나간다. <표준>

나. 세라는 신경질을 바라 냈고 아이는 그래도 들은 둥 만 둥이었다.
<세종>

다. 그녀는 혜정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한다. <세종>

(2) 가. 그는 방이 출다는 둥 건조하다는 둥 불만이 많았다. <표준>

나. 엄마는 또 미안하다는 말 하나도 없이 내가 일찍 온다고 했는데

1) 현대국어 ‘둥’은 중세국어에서 ‘둥’으로 표기되다 근대국어 이후 ‘둥’, ‘둥’으로 표기 및 어형상의 변화가 일어나며 ‘-리’ 뒤에서 경음화가 반영된 ‘똥’, ‘똥’으로도 나타난다. ‘둥’은 18세기 말 경부터 형태가 동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이주행 1988:108). 본고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대표형으로 ‘둥’을 쓰기로 한다.

2)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형태 분석 검색기에서 검색한 결과 의존명사 ‘둥’의 예는 301개 확인되었다. 중복으로 잡힌 것, 의존명사 ‘둥’을 잘못 표기한 것, 품사 표지 오류 등을 제외하고 총 155개의 용례를 추출하였는데 이 중 ‘-리 둥’의 예는 단 4번만 확인되어(‘죽을 둥 살 둥’(3번), ‘달을 둥 말 둥’(1번)) 현대국어에서는 ‘-니 둥’의 쓰임이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151개의 용례 중 간접인용 구문에는 93번, 유사성의 의미를 지니는 예는 58번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어와 구어 자료를 따로 검색한 결과 주로 문어 자료에서만 예문이 확인되었다.

늦게 왔으니 너의 책임 아니냐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사과하라는
나는 등 화를 내셨다. <세종>

다. 십만 원을 꾸어줬다는 등 소개비로 받아갔다는 등, 믿을 사람은 아
무도 없구만요. <세종>

(1)은 ‘등’이 부사성 의존명사로 쓰인 예로, 동사구의 부사어로 쓰이거나
계사나 ‘하다’와 통합하여 쓰였다. (2)는 ‘등’이 간접인용 구문에 쓰인 예로,
대개는 발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과 쓰이지만 (2다)처럼 발화 행위와 관련
한 명사나 동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1)의 기능은 중세국어에서도 확인되나
그 예가 드물게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등’은 인지동사
‘모르다’와 공기하여 ‘-ㄴ지를 모르다’로 나타난다. (2)는 20세기 초 신소설
자료에서부터 확인된다. 결국 현대국어로 오면서 ‘등’은 인지 구문에서의
쓰임은 세력을 잃고 간접인용 구문에서는 쓰임이 새로 나타나는 등의 모종
의 변화를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등’의 변천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2)와 같은 예는 어떤 동기로 출현하였는지 등이 문제로 남는다.

중세국어에서와 현대국어에서의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존명사 ‘등’
만을 대상으로 문법 양상을 기술하고 이를 해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등’은 의존명사 체계를 다룬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유사 문법
양상을 지니는 언어 형식, 가령 ‘-ㄴ지’, ‘-ㄴ가’, ‘-ㄴ 줄’ 등과 함께 다루어졌
을 뿐이다.³⁾ 이에 본고는 ‘등’의 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등’

3) ‘-ㄴ 등’은 비하(안주호 1997:159), 미심쩍음(왕문용 1988:174)의 양태 의미를 지닌다
고 기술된 바 있다. 본고는 ‘등’ 구성의 변천과 범주 변화 등의 문법 기능을 주로 다루
며 양태 의미는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 ‘등’의 예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정적 맥락에서 쓰였지만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맥락에 쓰인 예문도 확인된다는 점
만 지적하고자 한다.

(가) 우리는 각기 한 잔씩 먹고 별을 바라보며 별들이 예쁘다는 등 이런 시골서는

구성의 범주 변화 및 유사 문법 형식과의 관련성, 20세기 이후 간접인용 구문에서의 쓰임이 생겨난 원인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체 의존명사 목록 및 체계를 연구하면서 ‘둥’을 다룬 현대국어 논의로, 임동훈(1991:52), 안효경(2001:160)에서는 ‘둥’을 부사성 의존명사로 분류하였다. 후자의 논의를 따르면, ‘둥’ 자체는 ‘유사성’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첩 구성을 이루면 불확실한 상황을 표현하며, 내용을 열거하는 경우는 ‘열거된 내용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보았다. 통시적 논의로, 이주행(1988:110)에서 ‘둥’의 원형적 의미는 시대 구분 없이 ‘어떤 사실’로 보았고 확장적 의미는 {사실, 유사함, 어떤 행위를 한가지로 묶어 나열함...}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조항범(1998:92)에서 청주간찰에 나타난 ‘둥’은 ‘줄’의 의미이며 ‘주근 동 산 동’과 같이 반복 구성에 나타나는 ‘둥’은 ‘덧’의 뜻을 가지며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직접 통합하여 쓰인다고 지적한 것과 통한다. 한편 ‘둥’을 유사 문법 형식과 관련지으면서 이현희(1982:79)에서는 ‘-ㄴ가’계 의문어미가 중세국어에서 원칙적으로 간접의문을 표시하다가 직접의문에서 쓰이게 됨에 따라 15세기 간접의문을 표시하는 새로운 형태로 ‘-ㄴ둥’이 보인다고 하였다. 상위문의 서술어가 ‘모르다’, 혹은 ‘아디 못ㅎ다’이거나 주관적 의심을 나타내는 구문에 쓰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2장에서는 ‘둥’의 시기별 쓰임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 여타의 문법 형식과의 관련성을 논의한다. 3장에서는 ‘둥’의 문법 범주, 간접인용 구문에서의 출현 동기 등 몇 가지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별이 달만큼 커 보인다는 둥 했다.

- (나) 그 전시회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돌토끼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자, 방송극을 만들자는 둥 야단들이었습니다. <이상 세종>

II. 의존명사 ‘둥’의 변천

이 장에서는 의존명사 ‘둥’의 기능을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로 나누어 논의하고 그 변천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의존명사 ‘둥’의 중세국어에서의 쓰임을 살펴보자.

중세국어에서 ‘둥’의 쓰임은 크게 모문동사 ‘모르다’, ‘알지 못하다’에 선행하여 내포문을 이루거나, 모문동사 ‘하다’ 등의 보어나 부사어로 나타난다.

- (1) 가. 하늘해서 飲食이 自然히 오나든 夫人이 좌시고 아모 드러서 온동 모르더시니 <월석 2:25b>
- 나. 또 藥毒 머그니와 머구디 아모 毒인동 모르느닐 고티디 <구급방 하 52a>
- 다. 天子들히 아못 因緣으로 이 이리 거신동 몰라 하더니 <월석 21: 5b-6a>
- 라. 네 그 썸 우희 므슴 현 디오 아미란 현 된동 몰래라 <번박 13a>
- 마. 지비 므슴 큰 연피 인논고 하여 므스물 하 구치니 아미라흔동 몰라 잠간 덕뇌 <청주 72>
- (2) 가. 乙生이 예게 자피여 니거늘 주근동 산동 몰라 고기와 마늘 파 먹디 아니하며 <속삼강 열 9a>
- 나. 주근동 산동 기벼를 모르니 가미 쉬올가 <청주 72>
- 다. 또 어니 브린동 어니 지빈동 어니 윈동 몰라 이녁 더녁 들녀 노릇하고 <월석 12:26a>
- 라. 이 읍 둥에서 진짓 거신동 거췌 거신동 우리 高麗人 사릅이 아디 물흐노니 <번노 하 64a-b>
- 마. 우리 사르미 오늘 주글동 리실 주글동 모르는 거시니 <번노 하 41b>

(1, 2)는 모두 ‘둥’이 ‘모르다’, ‘알지 못하다’의 내포문에 쓰인 예이며 (2)는 반복 구성을 이루는 예로 따로 모아두었다. (1)의 예문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모르다’와 결합한 절이 의문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⁴⁾ 가령 (1가)는 ‘부인이 (음식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 모르시더니’의 의미이다. 중세국어에서는 ‘-ㄴ/ㄷ 줄’, ‘-ㄴ지’ 역시 인지동사의 내포문에 쓰여 의문사를 포함한 관형사절과 결합하는 양상을 띠므로 이는 중세국어 인지동사 구문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보인다.⁵⁾

(2)는 ‘둥’이 반복 구성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반복 구성을 이룰 때는 구성항으로 (다)와 같이 관형사절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반의 관계에 있는 관형사절이 복수 항으로 나타난다. (2가)와 (2나)는 ‘기별을’의 유무에서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기별을’을 포함하는 유사한 구문의 ‘-ㄴ가’ 절, ‘-ㄴ지’ 절을 접속절로 파악하였다.⁶⁾ 이에 (2나)의 ‘주근둥

4) (1가)의 출처인 <청주간찰>에서 ‘자내 종기도 아므라흔 줄 모르고 [...] 먼 디 연고는 아므라흔 줄 모르거니와’와 같이 의문사를 포함한 절이 결합한 ‘-ㄴ 줄’ 구성이 ‘모르다’에 내포된 예가 확인된다. 조항범(1998:373)에서는 ‘아므라흔 줄’에 대한 주석에서 같은 편지에 보이는 ‘아므라흔 둥’과 관계된다고 언급하였다.

5) ‘줄’과 결합한 관형사절에 의문사를 포함한 구문의 문법적 설명은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정연주(2016:71)에서 ‘줄’ 구성을 내포의문절로 기술하였으며 이지영(2018:19-27)에서도 근대국어로 오면서 내포의문절 어미의 성격을 좀 더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6) 이지영(2008:118)에서는 ‘一定흔 기별’이 ‘모르-’의 목적어이므로 ‘주근디 산디’는 접속문의 선행절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고 안예리(2015:345-346)에서는 근대국어 ‘-ㄴ가’와 ‘-ㄴ지’의 영향관계를 살피면서 후행절의 주어나 목적어가 선행절과 의미상 동일 지시 관계에 있는 접속문 구문으로 파악하였다.

(가) 주근디 산디 내 一定흔 기벼를 몰라 흐노니<月釋 22:61b> (이지영 2008:118 재인용)

(나) [육혈은 다시 내오신 일이나 업습는가]i 날로 기별 모르오니 답답 넘너 7이업스와 흐읍느이다<1723-1737송준길49>(안예리 2015:346 재인용)

산동’을 접속절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으나, 접속은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특정한 의미 관계가 성립함을 그 개념적 속성으로 하는데(박진희 2012:1), ‘-ㄴ동’이 이끄는 절이 후행절에 대해 가지는 의미 관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본고는 화자의 내적 사유를 나타내는 자문이 삽입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마)는 ‘-ㄴ동’이 쓰인 예인데 중세국어에서 ‘동’이 관형사형어미 ‘-ㄴ’과 결합한 예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3) 나는 이리서 그 변을 건 동 만 동 드르니 아막란 줄 모르리로다 <청주 61>

(4) 가. 당시 설은 쁘디사 견딜 동 말 동 히예라 <청주 73>

나. 玄圃는 黃河를 차자 갈시 아노니 잇는 동 업슨 동 히니라 <두시 9:30b>

(3)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동’ 구성의 예이다. ‘나는 그 변을 건동건동 들으니’의 의미로 ‘들다’의 목적어는 ‘변(變)’이고 ‘건 동 만 동’은 부사어로 파악된다. (4가, 나)는 ‘하다’의 보어의 역할을 하는 ‘동’ 구성의 예이다. (4가)는 ‘견딜 듯 말 듯 하다’의 의미로 해석되고, (4나)는 ‘이는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근대국어에서 ‘동’ 구성은 17, 18세기에는 중세국어에서와 크게 다른 문법 양상을 보이지 않으나 19세기에는 간찰 자료를 중심으로 이전 시기와 다른 주요한 양상을 나타낸다. 먼저 17, 18세기 자료를 살펴보자.

(5) 가. 精神은 飄연히 바람의 불 곁터여 아므 드러간동 아디 못히니 <가례 5:22b-23a>

나. 자던 사람이 갖가스로 니러 불을 쓰디 아미 혼동 아디 못히나 무서워 불 노हत단 말을 못히고 <서궁 63a>

- 다. 니인이 노쇼 업시 헤딜너 멸화호미 몇 번인동 알니오 <계축 하 41b>
- 라. 진실로 그리 니를 차기면 혼 집의 잇다가 내종애 으슴 큰 마를 지어 뉘동 알고 <달성 59>
- 마. 이리 와 든녀갈동 아디 못하고 든녀가셔 올동 덩티 못호였는가 시 브니 더욱 닛디 못호노라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간찰 66>
- 바. 孟施畚는 曾子 갓고 北宮黝는 子夏 갓타니 二子の 勇을 그 뉘 賢호동 아디 묻거니와 <맹울 2:11b-12a>
- 사. 성네 쏘 무르되 내 엄미 죽건 디 안니 오라니 넉시 어너 곳에 간동 물내다 <지장 상 12b>
- (6) 가. 을성이 예게 차피여 니겨늘 주근동 산동 몰라 고기와 마늘과 먹디 아니호며 <동신속 열 1b>
- 나. 창성 부스 삭쥬 부스는 산동 죽은동 모를다 호엿더라 <산성 23b>
- 다. 저히 넘성의 것도 당초의 죽을동 살동 몰나 헿혀 불헿흔 일 이서 저히 거스로나 죽엄을 빼게 호라 호고 <서궁 32a>
- (7) 가. 면화든 잘리 허니 봉호 동 만 동 호여 호여 호너 <달성 27>
- 나. 유위나 즈시 호읍고져 호오디 전호 동 말 동 호여 즈시 몬호읍노이다 <달성 133>

(5)에서 보듯이 ‘동’은 ‘알다’, ‘알지 못하다’, ‘모르다’와 같은 인지 동사 구문의 내포문에 쓰이고 관형사절에 대개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다. (6)은 인지 구문에서 반복 구성으로 나타나는 예이고 (7)은 ‘호다’의 보어로 쓰인 ‘동’ 구성의 예이다. (7가)는 ‘봉한 듯도 하고 만 듯도 하다’의 의미이고 (7나)는 ‘전해질 듯도 하고 말 듯도 하다’의 의미이다.

- (8) 강해서 온 조기는 보내노라 흔 거시 사름이 두 번 오디 아니 와시니
닛고 아니 가져온동 등간의 일흔가 고이하다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간찰 47>

(8)은 ‘-ㄴ등’이 ‘-ㄴ가’ 의문문과 병치하고 심리동사가 후행하는 예로, ‘잇고 아니 가져왔는지 중간에 잃어버렸는지 이상하다’는 뜻이다.⁷⁾ 이 예문에서 ‘-ㄴ등’은 ‘-ㄴ가’ 의문문처럼 자문의 성격을 지니는 종결어미임을 알 수 있다. (2나)에서 자문의 ‘-ㄴ등’ 절이 삽입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19세기에 ‘등’은 이전 시기의 쓰임을 나타내는 한편 새로운 기능을 보이기도 한다.⁸⁾ 아래 (9)는 반복 구성에서 부사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ㄴ등’ 구성의 예로 중세국어에서와 기능이 달라지지 않은 예이다.

- (9) 가. 계테는 늑 세니 선인이 실시하시던 넌과 긱터여 설우물 아는 등
모르는 등 호고 <한중록 68>
 나. 살 동 죽을 동 고싱하면서 일년 농스 지어 노코도 <1897/1/16 독립
 신문 잡보>
 다. 하 조와서 죽을 동 말 동 츄추며 노리^호되 <심청전 서울대 소장
 완관71장본 64b>

한편 ‘등’은 여전히 인지 구문의 내포문에 쓰이면서 다양한 상위문 동사와의 결합이 새로 나타나고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서의 쓰임도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등’이 ‘모르다’와 여타 동사와 결합한 예를 보자.⁹⁾

7) 중세국어에서 ‘-ㄴ가’ 의문문이 상위문에 내포될 때 상위문 동사가 심리동사의 경우 ‘-ㄴ가’와의 사이에 ‘^호야’가 개재될 수 있고 이때의 ‘^호다’는 사유동사의 대동사로 본다(이현희 1982:48, 김정아 1985:283).

8) 19세기 ‘등’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일부는 20세기 초의 간찰 자료에서 그 예를 가져왔다.

- (10) 가. 도라 안치면 나는 즈즈네 소청홀 덧혀여 기별호오나 꾸짓지나 아닐
동 모르옵 <초계정씨 간찰 42>
- 나. 사돈의 말이 아모리 흐던지 봄의 혼인은 지별 거시니 넘너 마라
한다 하니 엇지 요랑하고 흐는 말동 모르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43>
- 다. 니가 세손 위흔 고심으로 그 사름을 지성 선디하지 아나시면 세손
안위가 또 엇더홀동 알아시리오 <한중록 386>
- 라. 비는 폐스국 거시디 농스혀여 먹으러 드러갓다다 호오나 어느 말이
올흔동 아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128>
- 마. 경광서원 엽히 이상흔 ㄱ지 잇다 호오나 엇더홀턴동 모르오나
지안은 대단타 흐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29>
- 바. 봉준은 썸나려 급 〃히 인마를 기다리오나 아니 드러오니 문에 치퓌
를 흐은지 하인이 병이 드러 그런동 모르니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19>
- (11) 가. 말습 ㄱ득 남스오나 서울 계실동 고을노 가신동 알지 못호와 이만
이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61>
- 나. 동싱은 간동 아니 간동 모라니 답 〃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10>
- 다. 이 놈이 죽을동 살동 올흔지 글흔지 모라고 그 흥소를 하니 <한중
록 564>
- 라. 심봉사난 슈연 공방에 지니던 터이라 가중실가지락이 잇서 죽을동
살동 모르고 밤낫 엽시 삭 밧고 관가 일 흐듯 흐되 <심청전 정명기
소장 낙51장본 43b>

(10, 11)은 중세국어에서도 확인되는 인지 구문에 쓰인 ‘-ㄴ동’의 예이다.

9) 본고에서 인용하는 19~20세기 초 간찰 자료는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 역주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태학사)” 총서이며, 의미 해석도 이를 참조하였다.

(10마)의 '엇더흐올던둥'은 '엇더흐오리던둥'의 축약형으로 '어떠했을지' 정도로 해석된다. '-ㄴ둥'이 선어말어미 '-리러-'와 결합한 예이다.¹⁰⁾ 또한 (10바), (11다)의 예에서는 '-ㄴ둥' 절이 '-ㄴ지' 절과 병치되어 '모르다'에 내포되었는데, 이를 통해 '-ㄴ지' 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상위문동사와의 결속력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가. 흥정을 흐려 흐려 흐면 싹글 듯하다고 근이가 덕이서 스실동 괴별
흐시라 흐오니 이 말이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20>
 나. 늑모쵸은 구헐숯오나 환을 지을동 고을 홀동 두 그지 요랑흐옵나
이다 <전주유씨 안동수곡과 간찰 23>
 다. 신행은 언제 되온동 굽집스오이다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117>
 라. 반져 쇼창 옷슨 뉘 거신동 편지에 아니흐여 계시나 츄들의 거시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43>

- (13) 가. 계남집도 저는 성흐나 어린 것이 증 잔상흐다 흐더니 엇더흐동
답 흐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10>
 나. 흐 답 흐오니 뵈 사름이나 보내 보고져 흐오나 농시가 되니 엇디
홀동 굽 흐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6>
 다. 며느리는 청금도경탕 다 먹어스오나 엇던동 민망습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48>
 라. 니 셔방은 무스이 갓논동 얹녀된다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64>

10) 19세기에서 '-을는지'의 예가 확인된다[후경 뜻이 전일 갓더면 옷지 되어실던지 숙제 사괴를 인흐엿든지 즉석의 혼가지로 해할 의논을 굿치고 그 모도 나가더니<한중록 312>(이지영 2018:135)]. 이지영(2018)에서는 19세기 이후에야 나타나는 '-을는지'는 '-리러-'와 '-은가'가 결합한 '-을런가'에 유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는 '-ㄴ지'가 통시적으로 선어말어미 '-더-'와 '-리러'와 결합이 제약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2)는 ‘-ㄴ둥’에 인지 동사 외의 다양한 표현이 후행하는 예로, ‘기별하다’, ‘요량(料量)하다’, ‘궁금하다’, ‘편지에 (씨) 있지 않다’가 쓰였다. (13)에서는 심리동사가 후행하는데 17세기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간찰>에서 ‘-ㄴ둥’에 심리동사가 후행하는 예를 확인한 바 있다(8번 예문).

다음으로 19세기에 ‘-ㄴ둥’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쓰인 예를 확인해보자.

- (14) 가. 첫몫살 종 # 잇스오니 무슨 병이온동 어제 죽도록 인심불성 알코
 오늘 그만호으나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간찰 117>
 나. 심녀 만호시니 그러신동 엄 # 흐시니 두립습고 <의성김씨 김성일
 파 종택 간찰 120>

(14)는 간찰에서 ‘-ㄴ둥’이 원인의 연결어미로 쓰인 예이다. (가)는 ‘무슨 병인지 어제 죽도록 앓고’의 의미이고 (나)는 ‘심려 많아 그러신지 기력이 매우 여리시니’의 의미이다.¹¹⁾

- (15) 가. 식은 시후 일양이고 뉴량도 일양 기환치 아니오니 아마 그 부족하
 여 그러호온 듯 익탁습고 언제 이러닷닐동 소성 아득호오이다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간찰 110>

11) 익명의 심사위원은 (14)의 예를 연결어미의 기능으로 볼 수 있을지 재고할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다. 우선, (14가)에서 ‘어제 죽도록 앓고’(후행절)의 원인은 ‘첫몫살이 종종 잇사오니’이며 (14나)에서 ‘그러신동’은 ‘엄엄흐시니’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14나)에서 ‘그러시디’는 심사위원의 조언대로 ‘엄엄하다’를 가리키지만 문장 구조상으로는 ‘심녀 만호시니 그러신동’ 절과 ‘엄엄흐시니’ 절이 접속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신동’으로 문장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후행 문맥과의 의미 연관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색하다. 그리고 (14가)에서 후행절의 원인은 화자가 추측한 내용으로 ‘무슨 병이 걸려서’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나. 종 파는 이 잇다 호오나 감시 상없다 하니 아히 가지도 드잔으
엇디 될동 두어 ㄱ지나 말호읍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51>
- 다. 지취 혼인 야단을 치더니 스월 초이일노 지낸다 호오니 돈은 가져
 가시나 엇더케 호던동 필경 모도 덜하여 노코 더 물일 듯하고 <의
 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57>
- 라. 부전은 노 간다 호더니 엇디 될년동 붓드러 이슬 것 아니오니 썸미
 굿즈오니 절통호호읍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50>
- (16) 가. 차들 형데 과거의 빗치고 도라와 혈숙호오니 결박 아쳐롭스오나
 정헌 길이라 찌나 오라가서 걱정이나 아니 시기올동 이 스흘은
 아모리 아도 아프단 말 아니코 혼자 알호니 슬피시읍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48>
- 나. 싱기를 갖게 하여 다혀시나 맞기나 마즐동 아니 될 걸 호오니 맛것
 찬을 듯 민망호읍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4>
- 다. 며느리도 게 가 두루 구하려 호오니 혹 봄즈음이나 이실동 아직은
 업스니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33>
- 라. 또 고더 가려 한다 호오니 말유스 호제마는 말을 드롤동 괴물호읍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41>
- (17) 가. 티소가 큰 년고는 업스오니 다행일동 숨중형데 무탈호읍는이다
 <은진송씨 송병필가 간찰 85>
- 나. 천어 소〃 호오나 호번 즈서 보실동 <전주유씨 안동수곡파 간찰
 46>

(15~17)은 '-니둥'의 종결어미의 쓰임을 보여준다. (15)는 의문사를 포
 함한 자문의 의문어미로 파악되는데, 가령 (15가)는 '저는 언제나 일어나
 다닐지……. 회복할 일이 아득하다'의 의미이다. (16)은 의문사를 포함하지
 않은 자문의 의문어미로 파악되며, 가령 (16가)는 '차들 형제가……걱정이

나 아니 시킬지'의 의미이다. (17)에서 보듯이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외 다른 자료에서도 종결어미의 쓰임은 확인된다.¹²⁾¹³⁾

이제 20세기 초 '둥'의 기능을 살펴보자.

(18) 가. 죽을둥 살둥 모로고 예씨지 왓네 하며 <화세계 380>

나. 그 모양으로 정신 업시 셋다가 저역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종용히 나아가 <금강문 63>

다. 만일 주인이 업시면 쪼심이 업시 흘 둥 말 둥 하는 모양으로 힝
니 <신학월보 1:385>

라. 우리 밋는 사람 아모 곳이라도 하느님 대전에 잇고 하느님 눈 압헤
힝홀 줄을 싱각하면 엇지 쪼심 업시 불칙하고 계으르고 흘 둥 말
둥 모양으로 하느님 법을 시힝하고 <신학월보 1:385>

마. 숯흔 눈물이 들거니 밋거니 하야 피노흔 두루말이에 썩々 써러져
셔 조희가 흙사벽 젓어 쥐어쓰게 되얏는디 된 둥 만 둥 그디로
원정을 써셔 한엽해 밀어 눅코 <현미경 113>

(19) 가. 군인의 테면을 손상한다는 둥 무수히 호통을 썩다가 <두전성 26>

나. 디방 지판소 판스 김상현이는 모야무지간에 칼을 마젓다는 둥 그

12) 익명의 심사위원은 (15~17)의 대부분의 예가 '-르둥'이라는 점과 의존명사 구 구성이 어미화할 때 관형사형어미 '-ㄴ'이 관여한 구성과 '-르'이 관여한 구성이 등가 관계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다.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으로, 필자 역시 관형사형어미 '-ㄴ'과 '-르'은 현실성 지위의 범주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이들이 관여한 구성도 다른 발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다른 의존명사 구성의 어미화까지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 여타의 의존명사 구성을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3) '-ㄴ둥'이 종결어미로 쓰일 때 상대높임등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혼잣말 종결어미를 '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혼자서 하는 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로 정의하고 화제는 '안 높임(또는 낮춤)'에 해당한다(전후민 2015:10, 15)고 본 기준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노모와 부인 정익는 봉변할 당시에 기절을 흐얏다는 등 그 범인은 동아의원 의스인더 그 의원에 간호부로 잇는 영희와 봉희는 김상현의 은인인 고로 범인이 쥬인 의스인 줄 발각하야 곳 경찰서에 발각흐얏다는 등 이러흔 이야기를 흐는디 <안의성 167-8>

다. 정임이 외습촌은 이런 이악이를 밤이 되도록 흐다가 갖는디 그후로는 신랑의 선을 본다는 등 사주를 밧는다는 등 흐더니 <추월색 141>

라. 그러고는 또 학교는 씻긋히서 돛더니만 집에 오면 무엇이던지 부정히서 안 되얏다는 등 부모더러 완고의 늡은이라는 등 별소리가 다 만치오 <두견성 80>

마. 그 스람은 점々 슈상흐 말로 김상현이가 우리 미부가 되는데 그 판스가 우리 미부는 안인지 모르깃다는 등 간호부는 범인이 의스인지 엇지 알았는지 모르깃다는 등 흐는 말을 흐는 고로 <안의성 168>

(18가)와 같이 인지 구문에 나타나는 ‘-ㄴ등’의 예는 20세기 초에 그 예가 현저히 줄어든다. 대신 (18나~마)처럼 유사성의 의미를 지니면서 반복 구성을 이루는 ‘-ㄴ 등’은 그 예가 늘어난다. 그리고 (19)에서와 같은 간접 인용 구문에서의 쓰임이 새로 확인된다. 발화 명사(호통, 이야기, 별소리, 말 등)나 발화 동사(혹은 발화 동사의 대동사)와 공기하고 관형사형어미는 ‘-ㄴ’만이 출현하며, 구성항은 복수항이 전제되어 하나의 항만 나오더라도 나머지 항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장에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등’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국어에서 인지 구문의 내포 문에 쓰이던 ‘등’은 근대국어에 오면서 그 기능이 점차 소멸된다. 둘째, 이와 맞물려 중세국어에서부터 보어와 부사어의 기능을 하던 ‘등’ 구성은 근대국어에서 그 출현 빈도가 높아지며, ‘등’ 구성은 20세기 초부터 간접인용

구문에서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다. 셋째, ‘-ㄴ동’은 17세기에 종결어미로서 쓰임의 단초를 보이다가 19세기 간찰 자료에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기능이 분명히 확인된다.

Ⅲ. ‘동’의 범주 및 기능 변화 해석

3장에서는 시기별 ‘동’의 범주 특성을 기술하고 ‘동’ 구성이 간접인용 구문에 쓰이게 된 원인을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동’의 범주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연구는 중세국어에서 ‘동’은 본래의 [-ㄴ#[동]]이라는 의존명사 구성과 [-ㄴ#[동]] > -ㄴ동’의 문법화를 경험한 어미로서의 범주적 특성을 모두 지녔다고 파악한다. 의존명사 구성은 ‘유사성’의 의미를 지니면서 보어나 부사어로 쓰이며, 어미는 인지동사의 내포문에 결합하여 쓰인다.¹⁴⁾ 중세국어의 ‘-ㄴ동’이 어미의 기능을 지녔다고 파악하는 근거는 첫 번째, 관형사절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우-’가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두 번

14) 이현희(1994:473)에서도 중세국어 ‘동’의 범주를 이원적으로 파악한다. 이 논의에서는 중세국어 인지 구문 중 ‘흔디 알-’ 형식을 다루면서 ‘-은디’와 ‘-은동’을 ‘흔가 (알-, 모르-), ‘흔고 {알-, 모르-}’에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하면 어말어미가 되고, ‘흔 들 (알-, 모르-), ‘흔 줄 (알-, 모르-)’ 등에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하면 [명사구 보문#보문 명사]의 구조체가 된다고 하였다.

15) 이는 중세국어 ‘동’ 구성과 유사한 분포 및 발달 양상을 보이는 ‘-ㄴ지’의 선행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정재영(1996)에서는 중세국어 ‘-ㄴ디’를 [[[[-ㄴ]#디]+(조사)]>[-ㄴ디]>‘-ㄴ디’의 문법화 과정을 통하여 통시적으로 생성된 어미로 파악한다. 선행 연구에서 중세국어 ‘-ㄴ디’를 명사구 보문 구성과 어미로 구분하는 주된 근거는 선어말어미 ‘-오/우’의 결합 양상인데, ‘ㄷ’ 명사구 보문 구성은 대개 ‘-오/우’가 통합된 형식으로만 나타남에 반해 어미 ‘-ㄴ디’ 구문은 선어말어미 ‘-오/우’와 통합한 용례를 발견할 수 없다(정재영 1996:258, 이지영 2008:114 각주 3).

째, 근대국어에서 ‘-ㄴ’은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발달하는데 이러한 발달 양상은 ‘-ㄴ지’의 발달에서도 볼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자.

(20) 가. 이 相公의 軍인디 아노니 甲 니븐 므론 구루미 답사했는 듯도다
 <두서 7:25a>

나. 光目이 對答호디 내 어미 업슨 나래 福을 보타 救하야 싸허디
내 어미 아모디 냇논디 몰래이다 <월석 21:53a>

다. 太子 | 이실 찌긔 상네 너와 호디 있더니 이제 바라래 드러가 묻
 도라왜실씨 주근디 산디 내 一定호 고틀를 몰라 호노니 <월석 22:
 61b>

라. 阿難이 슬오디 世間衆生은 일로 갖ᄃ다 권마론 나는 뉘 正호디
뉘 갖ᄃ디 아디 몰호노이다 <능엄 2:11a>

마. 내 인성은 도히 인는 이리 귀터 아녀 의셔 죽고져 호디 수미 긴디
지그미 사라 이시니 <청주간찰 12>

바. 주글 뻘니 그런디 누예를사 묻 치니 <청주간찰 144> (정혜선
 2014:178 재인용)

(21) 가. 주인 디답이 그디가 이전에는 놀고도 잘 살더니 지금은 엇지 못
사논지요 그 사름 말이 내가 다행히 상늬되지 안코 사부의 즈식
 되여 디테며 인아족적이 남만 못 호지 안기로 [...] <독립 1897/
 1/30 잡보>

나. 이 스또 쇼문 드러니 치민선정 유명호여 빅성드리 만세불망 선정
 비를 세운다 하니 그러홀시 분명호지 그 노인 디답호디 예 이 스
 또오 공스는 잘호는지 못호는지 모로거니와 참나무 휘은 듯호니
 엇더타 홀지요 <남원 5:17a> (정혜선 2014:183 재인용)

중세국어에서 ‘-ㄴ지’는 (20가-라)와 같이 인지 동사에 내포되어 쓰이는 데 (20나)와 같이 관형사절에 의문사를 포함하거나⁶⁾ (20다, 라)와 같이 반

복 구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2장에서 살펴본 중세국어 ‘둥’의 쓰임과 유사하다. 한편 중세국어에서 ‘-ㄴ지’는 이미 연결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20 마, 바)는 접속문에 쓰인 예로 후행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추측한 내용을 ‘-ㄴ지’가 결합한 절에서 나타내고 있다. (21)은 후기 근대국어에서 ‘-ㄴ지’가 종결어미로 쓰인 예이다.¹⁷⁾

이상의 ‘-ㄴ지’의 발달 양상을 ‘-ㄴ둥’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데 편의상 2장의 예문을 다시 가져와 보겠다.

(22) 가. 하늘해서 飲食이 自然히 오나든 夫人이 좌시키고 아모 드라셔 온동
모르더시니 <월석 2:25b> (=1가)

나. 심너 만흐시니 그러신동 업 # 흐시니 두렵습고 <의성김씨 김성일
 과 종택 간찰 120> (=14나)

다. 며느리도 게 가 두루 구혀려 호오니 혹 봄즈음이나 이실동 아직은
 업스니 <의성김씨 김성일과 종택 간찰 33> (=16다)

(22가)는 상위문 인지 동사에 내포된 예이고, (22나, 다)는 19세기에 ‘-ㄴ둥’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예이다. 따라서 의존명사 구성에서 어미로 문법화를 겪는 ‘-ㄴ지’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 ‘-ㄴ둥’은 중세국어 인지 동사의 내포문 어미로 쓰이다 근대국어에서 연결어미, 종결어미

16) ‘-ㄴ지’가 결합한 관형사절에 의문사를 포함한 예가 있다는 것은 이지영(2008:116)에서 언급된 바 있다.

17) ‘-ㄴ지’의 종결어미화에 대해 이지영(2008:134)에서는 동사구 내포문의 위치에서 주어 성분의 위치로 간접의문문 어미로서의 용법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한다. 정혜선(2014:193)에서는 동사구 내포문 쓰임에서 내포문과 상위문 동사가 도치되어 쓰이다가 상위문 동사가 생략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예: 내 모로리도다 너는 어더로서 온 나그넨지 <중노 상 43b>]. 이금희(2017:49)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내포문 어미 ‘-ㄴ지 모르다’ 구성에서 상위문 서술어 ‘모르다’가 생략되고 의문이나 자문, 탄식의 의미를 갖는 어미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의 발달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등’이 의존명사 구성이라는 통사적 구성과 어미의 범주적 지위를 지닐 때 ‘등’의 변천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1> 관형사형어미와 ‘등’ 결합 형식의 사적 변화 과정

범주		기능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의존 명사		부사어/보어	_____		
		간접 인용			_____
어 미	연결	_____		
	종결	내포문	_____.....		
		모문_____		

<표 1>에서 보듯, ‘등’은 중세국어에서 의존명사 구성(-ㄴ#등)으로서 부사어나 보어로 기능하고 어미(-ㄴ등)로서 내포문 어미로 기능한다. 내포문 어미로 기능하던 ‘-ㄴ등’은 근대국어 후기로 갈수록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기능을 하는 예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어미의 기능은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이와

18) 본고는 내포문 어미에서 연결어미, 종결어미로의 기능상의 발달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그러한 발달의 동기를 해석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이는 ‘-ㄴ등’뿐만 아니라 다른 의존명사 구성의 발달까지도 고려하여 기술할 때 설명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여타 의존명사 구성을 포함하여 발달 동기를 문법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맞물려 ‘둥’ 구성은 20세기 초부터 간접인용 구문에 쓰이기 시작한다. 어미로서 ‘-ㄴ둥’의 기능이 소멸한 것은, 중세국어에서부터 유사한 문법 기능을 수행하며 근대국어에서 그 세력을 확장한 ‘-ㄴ지’와의 경쟁관계에서 밀린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ㄴ 둥’이 간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에 결합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고는 ‘-ㄴ 둥’ 외에 현대국어에서 간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과 결합한 언어 형식이 무엇인지 주목하였다. 채숙희(2011:146)에 따르면 간접인용 형식의 피인용 다음에는 ‘-고’나 ‘-라고’와 같은 인용표지가 쓰이기도 하지만 ‘-느니’, ‘-거니’, ‘-나’ 등의 어미도 결합한다. 아래 (23)이 그 예이다.

- (23) 가. 그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거니 제가 그르다거니, 방과 앞마당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 나. 다른 사람도 아닌 선생님들이 ‘반성문’을 쓰라거니 못 쓰겠다거니 얼굴 붉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은 더 개운치 않다.
- 다. 뭐, 육지로 운반하다 보면 선도가 떨어진다나 어쩐다나. 무슨 수작들을 부리는가 싶어
- 라. 건강 식품을 취급한다나 뭐라든데, 나도 아직 잘은 모르겠네. <이상 세종>

그런데 ‘-거니’와 ‘-나’는 자문의 종결어미로도 쓰인다. ‘-거니’와 ‘-나’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을 보면, ‘-거니’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마땅한 사실로 인정하거나 미루어 짐작한 사실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속으로 하는 말의 인용 구성에 쓰인다.’, ‘-나’는 ‘((주로 ‘-나 하다’, ‘-나 싶다’, ‘-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기술되어 있다(밑줄은 필자가 추가함).

(24) 가. 핏줄의 정이란 다 그러하거니 (싶다). <표준, (싶다)는 필자가 추가함>

나. 저 애가 왜 화가 났나 싶어서 내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세종>

(24)에서 ‘-거니’와 ‘-나’는 단독으로 또는 내적 사유를 인용하는 ‘싶다’와 함께 쓰여 화자의 자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중세국어에서부터 확인된다. 즉 ‘-거니’ 그리고 ‘-나’의 역사적 소급형인 ‘-는가’가 중세국어에서 화자의 자문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⁹⁾²⁰⁾ 결국 피인용절에 결합하는 ‘-니 둥’은 근대국어에서 ‘-니 둥’이 자문의 종결어미로서 기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둥’의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의 문법 양상을 논의한 뒤 사적 변천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였다.

우선, 중세국어에서 ‘둥’의 분포와 범주를 확인하였는데, 본고는 중세국

19) ‘-나’는 19세기에 새로 형성된 하계체 종결어미로 ‘-는가’에서 축약이 일어나서 형성되었는데 직접의문의 하계체에 호응하면서 간접의문과 하라체에도 파급되어 쓰였다 (이현희 1982:95-96).

20) 중세국어에서 ‘-거니’와 ‘-는가’가 ‘싶다’와 함께 사용되어 화자의 내적 사유를 나타내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가) 즈시기 워터흐 지조를 비화 나니 나간 지기면 다시 보려니 식브다녀 민양 누니 불이고 닳디 못흐니 <청주간찰 135>

(나) 닳 밋온 디 니른가 식브거늘 <구급방언해 상, 48b> (이상 정혜선 2010:171, 173 재인용)

어에서 관형사형어미와 ‘둥’의 결합형이 의존명사 구성과 어미의 두 가지 범주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의존명사 구성은 유사성의 의미를 지니면서 모문 동사의 보어나 부사어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중세국어 이후 확대되어 현대국어까지 유지된다. 반면 인지 동사, 주로 ‘모르다’와 공기하던 ‘-ㄴ둥’은 내포문 어미로 기능하다 근대국어 후기로 올수록 그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기능을 하는 예가 나타난다. 이는 통사적 구성에서 문법화한 ‘-ㄴ지’와 동일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20세기 초 주로 신소설 자료에서 ‘-ㄴ 둥’이 간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과 결합하는 새로운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접인용 구문에서의 쓰임은 사적으로 ‘-ㄴ둥’이 자문의 종결어미로 기능하던 것에 기인함을 논의하였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피인용절에 결합하는 ‘-거니’와 ‘-나’가 자문의 종결어미로 쓰인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본고는 그동안 의존명사 체계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던 ‘둥’의 변천과 문법 양상을 다루었다. ‘둥’의 변천 및 문법 기술은 동일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여타의 언어 형식들을 포괄하여 논의할 때 좀 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은숙,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2011.
- 김정아, 「15세기 국어의 ‘-ㄴ가’ 의문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4, 국어국문학회, 1985, pp.281-301.
- 박진희, 「국어 절 접속의 의미관계 유형에 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12.
- 백두현,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
- 서정목,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1987.
- 안예리, 「근대국어 ‘-ㄴ가’와 ‘-ㄴ지’의 영향관계」,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2015, pp.325-355.
- 안주호,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1997.
- 안효경,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 2001.
- 왕문용, 『근대 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한샘, 1988.
- 이금희, 「국어 어미 ‘-ㄴ지’의 문법화와 통사적·의미적 특징」, 『한민족어문학』 73, 한민족어문학회, 2017, pp.35-66.
- 이주행,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1988, 한샘.
- 이지영,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3, 국어학회, 2008, pp.113-140.
- _____, 「他動詞文에 나타나는 ‘줄’ 構成의 通時的 樣相에 대한 一考察」, 『어문연구』 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pp.7-36.
- 이필영,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1995.
- 이현희,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1982.
- _____,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1994.
- 임동훈,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1991.
- 전후민, 「혼жат말 종결어미 연구」,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5-34.
- 정연주, 「의존명사 ‘줄’의 기능 특화 양상」, 『영주어문』 34, 영주어문학회, 2016, pp.65-94.
- 정재영, 『依存名詞 ㄷ의 文法化(국어학총서 23)』, 1996, 태학사.
- 정주연, 「의문 어미 ‘-ㄴ가’, ‘-ㄴ지’의 통시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정혜선, 「‘싫다’ 構文의 歷史的 變化」, 『어문연구』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pp.169-191.
- _____, 「양태 어미의 사적 변화: ‘-ㄴ지’, ‘-ㄴ지」, 『한국어 어미의 문법』, 역락, 2014.

pp.158-194.

조항범,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1998, 태학사.

채숙희,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최정도 · 김문기, 『‘-ㄴ지’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내포문에서의 쓰임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3, 우리말학회, 2013, pp.5-31.

한재영, 『十六世紀 國語構文의 研究』, 신구문화사, 1996.

黃慶洙, 『中世國語의 依存名詞 研究』, 청운,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 and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bound noun ‘dung’

Chung, Hye-sun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historical change and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dung’. First of all, ‘dung’ functioned as the ending of embedded sentence in cognitive constructions or functioned as a bound noun in Middle Korean. Ending ‘-ndung’ experienced the change to extend to conjunctive endings and sentence-final endings, and ‘dung’ construction appeared productively in late Modern Korean. Also, ‘dung’ construction was used in indirect quotation constructions mainly in Sinsoseol pu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is related to the fact that ‘-ndung’ was the sentence-final ending expressing self-question.

Key Word: dung, historical change, cognitive construction, bound noun, ending,
indirect quotation, self-question

정혜선

소속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사

전자우편 : hyessun@korea.kr

이 논문은 2019년 2월 12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